

# “전력 구조 개편 필요”...한전 독점·정치 결정 요금 한계 지적

국회미래연구원,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20여년 간 개편 중단...요금 정상화·독립 규제위 신설 등 주장

한전의 전력 소매시장 독점과 정치에 영향을 받는 전기요금 체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시장에서 인공지능(AI)·탄소중립적 극 도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동안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구조적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2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력 소매시장 구조가 산업 경쟁력과 시장 기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전기요금이 원자재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등 국내 전력 소매시장의 전체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소매시장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다르게 한전이 독점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이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인하 여부를 전기 유통을 담당하는 한전이 아닌 정치권이 결정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산업 구조로 인해 한전이 재무 악화, 투자 지연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요금·서비스 경쟁은 차단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원자재 가격이 대폭 증가했을 당시에도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려한 정치권은 산업용 외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한전은 지난 2021~2023년 3년 만에 총부채 200조원, 누적적자 45조원을 기록한 뒤 아직까지도 재무위기에 시달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 원리에 따라 발전 원자재의 국제 가격 변동을 신속하게 전력 소매가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 초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중단된 이후 20여년 이상 전력산업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 체제가 유지될 경우 기업들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가속화, 자가발전을 위한 ‘탈한전’ 등으로 전력시장 전체가 한전 중심의 ‘규제형’과 직접거래 중심의 ‘비규제형’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기업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대거 이탈하면 한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놔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전력시장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편 과정도 분석했다. 우선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발전부문 경쟁 도입, 소매시장 부분 개방,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EU 역시 지난 1996년 이후 세 차례 전력 지침을 통해 전력산업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 단계적 소매시장 개편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더불어 독립적인 규제, 망 중립성 확보가 병행돼야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 단계적 소매시장 개편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규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리된 전기요금·망 요금 결정 기구인 ‘독립 규제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홍문표 aT사장, 업무보고회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 20일 aT 세종충북지역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중부권 정부 부처 협력 창구’로서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aT 제공〉

## 안전 경영 노력 결실...한전, 안전관리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지난해 ‘중대재해 ZERO’·협력사 재해 46% 감소 등 기록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발주청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했으며, 전국 283개 건설현장의 366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를 통해 안전 조직, 법령 준수, 위험요소 확인·제거 활동 등 153개 세부 지표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안전 방침 및 조직화, 현장의 법제요건 관리, 안전한 공사발주체계 운영, 수급자 지원 등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자발적으로 안전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국토부 소관 건설현장에서 2년 연속 사망사고 0건을 달성한 점이 호평받았다.

한전은 지난 3년 동안 안전관리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보통’ 등급에 머물렀지만, 2024년 ‘우수’를 거쳐 지난해 ‘매우 우수’ 등급을 차지하는 등 매년 등급을 끌어올렸다.

한전은 이같은 성과를 이끈 요인으로 김동철 사

장의 ‘안전 경영 의지’를 꼽았다. 김 사장은 직접 13m 높이의 활선바킷에 탑승하는 등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 ZERO’를 기록했고, 감전·추락·끼임 등 고위험 재해도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치보다 48% 줄었다. 또 협력사 재해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작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집중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안전점검기동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이 조직 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통합 웹 도입...KISA, 디지털 안전망 구축

118상담서비스 개편...이용자 편의 상승 기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8상담센터 개소 16주년을 맞아 더욱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118상담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118상담센터는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많아진 데 따라 맞춤형 대응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과 118내비게이션 웹페이지 신설이 핵심이다.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 서비스는 기존 전화 위주 상담에서 신규 추가된 방식으로, PC나 모바일을

통해 118내비게이션 웹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18내비게이션은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상담·신고·서비스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모은 통합 웹페이지로, KISA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사이버 고충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118상담센터가 전문적인 사이버 고충 상담 창구로서 더 쉽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낮에도 영하권 한파에...한국전력거래소, 전력 수요 상승 전망

1월 3~4주차 전력 수급 안정적

절기 상 연중 가장 추운 대한(大寒)을 맞아 전국이 맹추위에 떨고 있는 가운데,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번주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1월 4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1월 3주차(12~16일)

전력 수요량은 80.7~87.5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공급량은 97.6~102.9GW로 예비율 15.9~23.4%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이뤄졌다.

1월 4주차(19~23일)에는 전력 수요량 증가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10.5도), 인천(-11.8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춘천(-11.1도), 대전(-8.6도), 광주(-4.9도) 등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영하권 날씨를 기록하며 난방 전력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주차 예상 전력수요량은 84.1~89.6GW로 전주 대비 2.1~3.4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예비전력 14.8~18.2GW 예비율 16.8~21.6% 수준으로 전력공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면적 (km²)	유산지 (km²)	원생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알반식처

갯벌 위에 춤추는 두루미, 사위      알반식처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해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개찰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경해보는 활동